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6월에 민간 일자리 거의 50만개 증가… 연간 최대폭
- Bloomberg: 5월 미 무역적자 줄어… 상품 수입 감소 탓
- Bloomberg: 연준 의사록 보니 6월 인상 중단 관련 이견있었다
- WSJ: 미국인 퇴사율 줄어든다

"

[미국 금융]
- CNBC;모기지 수요 한달만에 가장 떨어져… 금리 인상 탓
- Bloomberg: 미 국채 수익률이 2년물은 5% 상회, 10년물은 4% 상회
- WSJ: 메인스트릿 은행들. 힘든 상황 맞고 있다.

[미국 라이프]
- CNN Business: 미국인들 얼마를 벌어야 안정적이라고 느낄까?

[AI 동향]
- WSJ:인공지능 붐이 기술 업계 침체를 막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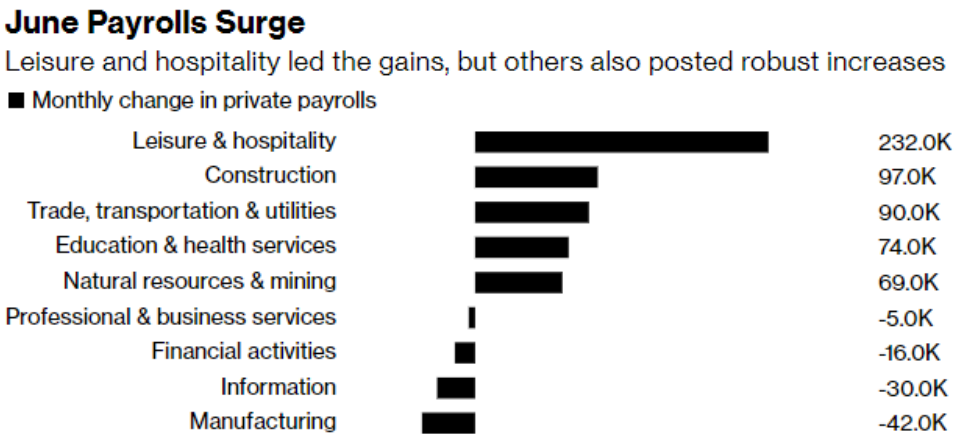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CNBC: 한국, 최고의 AI 허브가 되고자 한다… 메모리 칩 우위
- CNBC: 미국인 30%, “팁문화 문제 많다”… 일부 기업도 동의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US Companies Add Nearly Half a Million Jobs, Most in Over a Year
6월에 민간 일자리 거의 50만개 증가… 연간 최대폭

- 오늘 목요일 ADP Research Institute와 Stanford Digital Economy Lab의 공동 발표는 노동시장이 계속적으로 견조한 점을 보여주고 있다.
- 6월에 민간 일자리가 49만7천개 증가해 작년 2월 이래 가장 크게 늘었다.
- 일자리 확대는 전반적인 업종에서 일어났는데 건축, 무욕, 교화, 레저, 한데 산업등에서 일어났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US Trade Deficit Narrows as Imports of Merchandise Decline
미 무역적자 줄어… 상품 수입 감소 탓

- 5월에 미 무역적자가 줄었다. 수입 상품의 총가격이 지난 2021년 10월이래 가장 낮아졌기 때문이다.
- 목요일 연방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상품과 서비스 무역 적자는 6백90억달로 한달전보다 55억불(7.3%) 줄었다.
- 상품과 서비스 수입액은 2.3% 감소했는데 소비재 제품과 산업 용품 탓이다. 총 수출도 0.8% 감소했는데 식품과 주로 콩과 같은 사료의 출하량 감소 탓이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Fed Minutes Reveal Divisions Over Decision to Pause in June
연준 의사록 보니 6월 인상 중단 관련 이견있었다

- 연준 관리들은 6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일시 중단하기로 약하게 (전원 일치가 아니게) 합의했지만, 강한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7월 말에 다시 인상하기로 약속했다.
- 발표된 연준의 6월 13~14일 회의록에 따르면 대부분의 연준 관리들은 금리를 5%~5.25% 목표 범위에서 동결하는 것이 "적절하거나 받아들일 만하다"고 생각했지만, 일부 관리들은 0.25%포인트 인상을 지지하기도 했다.

Bloomberg 기사

WSJ: Americans Have Quit Quitting Their Jobs
미국인 퇴사율 줄어든다

- 미국인들이 팬데믹 기간에 가장 많이 일자리를 그만 두었으나 이후 감소하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연준이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과열되었던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 미국인들은 금년 4월에 3백80만개의 일자리를 스스로 떠났다. 이는 연방 노동부의 기록상 가장 큰 수치인 지난 2021년 11월의 그만둔 일자리 4백 50만개보다 70만개가 줄어든 수치다.
- 그만둔 숫자를 전체 고용숫자와 대비한 퇴사율은 봄 시즌에 2.4%로 팬데믹 이전과 비슷했고, 작년 4월의 3% 보다 줄어들었다.

WSJ 기사

[미국 금융]

CNBC: Mortgage demand drops to lowest level in a month, as interest rates rise
모기지 수요 한달만에 가장 떨어져… 금리 인상 탓

- 금리 상승은 지난 수주동안 상승세를 보이던 모기지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계약 이자율은 6.75%에서 6.85%로 상승했다.
- 이에 따라 3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던 주택 구입 모기지 수요는 한주동안 5% 감소했다.

CNBC 기사

Bloomberg: US Two-Year Yield Tops 5%, 10-Year Tops 4%, Nearing 2023 Highs
미 국채 수익률이 2년물은 5% 상회, 10년물은 4% 상회... 올해 최대 근접

- 미 국채 수익률이 올해 거의 최고 수치로 상승하고 있다.
- 2년물이 5%, 10년물은 4%를 상회했서 지난 3월 이후 처음이다. 이은 민간 부분의 견조한 고용 증가로 연준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 2년만기 수익률은 5.04%로 10베이스 포인트 상승했고, 10년물은 4.01%로 3월 최고치에서 8베이시스포인트 이내로 상승했다.

Bloomberg 기사

WSJ: Everyone Wants Interest on Their Deposits. That’s Bad for Main Street Banks.
메인스트릿 은행들. 힘든 상황 맞고 있다.

- 연준이 인플레 관리를 위해 금리 인상을 시작했을때, 기존의 전통적인 관념은 메인 스트리트 은행에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였다. 예금 이자율보다 대출 금리를 더 빠르게 인상하여 차액을 챙길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 그러나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다. 3개의 중형은행 몰락 소식을 접한 고객들이 이자가 없는 당좌 예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다.
- 이에 따라 은행들은 예금에 대해 너 높은 이자율을 지불해야 했기에 대출에 더 많은 이자를 부과하는 이점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은행들은 최근의 실패에 대응하기 위해 현금을 비축하고 높은 비용이 대출을 활용하고 있다.

WSJ 기사

미국 라이프

CNN Business: Here's what Americans say they need to earn to feel rich, or even just financially secure
미국인들 얼마를 벌어야 안정적이라고 느낄까?

- 2천5백명의 성인 응답자는 재정적으로 안정되기 위해서는 연 평균 23만3천불을 벌어야 하고, 재정적인 자유로움을 갖기 위해서는 연간 48만3천불을 벌어야 한다고 설문 조사 기관 Bankrate는 밝혔다.
- 이것과 비교하기 위해선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2021년 풀타임 근로자의 중간 소득은 5만6천4백73불로 나타났다.

CNN Business 자료

AI 동향

WSJ: AI Boom Stems Tech's Downturn
인공지능 붐이 기술 업계 침체를 막는다

-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이 둔화되던 기술 경제에 얼마전부터 강력한 반작용을 일어나고 있다. 많은 대기업의 주가와 성장 전망을 올라가고 새로운 스타트업의 물결을 AI가 일으키고 있다.
- 지난해 말 스타트업 OpenAI가 인간의 언어로 대화할 수 있는 봇 ChatGPT를 공개한 이후 투자자, 경영진, 기술 사용자 사이에서 AI에 대한 열기가 크게 증가했다.
-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등 상위 기술주들은 Bing검색 엔진부터 소프트웨어에 기술을 적용해 AI에 선봉에 섰고 여러 검색 기능도 출시했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CNBC: South Korea wants to be a top A.I. hub — its memory chip dominance could be an advantage
한국, 최고의 AI 허브가 되고자 한다… 메모리 칩 우위

- "한국은 AI 반도체와 같이 급성장하는 유망 분야에서 강력한 리더로 부상하고자 한다".
- 한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 한국이 현재 메모리 칩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다 인공지능 생태계가 좋기 때문에 글로벌 인공지능 침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한편 한국은 메모리 칩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국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전체 시장 점유율의 70% 가까이 점유하고 있다.

CNBC 기사

CNBC: 30% of Americans say ‘tipping culture is out of control,’ as some businesses agree to scrap tip prompts
미국인 30%, “팁문화 문제 많다”… 일부 기업도 동의

- Bankrate의 관련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대략 3분의 1이 팁문화를 ‘통제 불가능한 상태”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 일부 전문가들은 “고객들의 입장에서 피로감 이상으로 짜증을 느끼게 한다”고 전했다
- 이에 따라 일부 기업에서는 미리 정해진 옵션이 들어있는 디지털 터치 스크린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CNBC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정보

美 금리인상·미중 갈등 우려 속 亞증시 하락…항셍 장중 3%↓

美 10년물 국채 금리 4개월 새 최고…엔/달러 환율은 143엔대로 하락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상과 미중 갈등 격화에 대한 우려 속에 홍콩 항셍지수를 비롯한 아시아 주요 증시 지수가 동반 하락했다.

6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가 -0.88% 하락한 것을 비롯해 중국 본토의 상하이 종합지수와 선전성분지수 종가는 각각 0.54%, 0.37% 떨어졌다.

일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1.70%), 대만 자취안지수(-1.73%), 호주 S&P/ASX 200 지수(-1.24%)도 약세를 면치 못했다.

홍콩 항셍지수는 장 중 한때 3.28%까지 하락했지만 이후 낙폭을 소폭 만회했고 한국시간 오후 4시 5분 기준 전장 대비 2.89% 내린 채 거래되고 있다. 홍콩에 상장된 중국 본토 기업들로 구성된 홍콩H지수(HSCEI)는 3.35% 하락 중이다.

시장에서는 5일(현지시간) 공개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의사록에 주목했다.

의사록에 "거의 모든 참석자가 기준금리 유지를 적절하거나 용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일부 참석자는 0.25%포인트 인상을 선호하거나 지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추가 긴축 전망에 힘을 실었다.

이에 이날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은행권 불안이 있던 지난 3월 이후 4개월 새 최고인 3.957%까지 올랐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는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0.38%)를 비롯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0.20%), 나스닥지수(-0.18%)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 아시아 증시도 그 여파를 이어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게다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6~9일 중국 방문을 앞두고 미중 긴장이 고조되는 것도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끼쳤다.

양측 회담에서 미국의 대중국 관세와 반도체산업 규제, 중국의 미 국채 보유 등이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이 반도체 등에 사용되는 갈륨·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 방침을 밝히면서 미중 관계가 경색된 상태다.

씨티인덱스의 맷 심프슨 애널리스트는 "미중 관계가 또다시 후퇴하고 연준이 기대보다 더 매파(통화 긴축 선호)적이라는 데 투자자들이 적응하면서, 증시 강세론자들의 투자 심리가 나빠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연준의 금리 동결 결정이 사실상 만장일치가 아니었고 대다수 위원이 추가 금리 인상 의사를 밝혔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중국 당국의 적극적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낮다는 골드만삭스의 견해 등도 부정적 영향을 줬다.

최근 달러 대비 중국 위안화와 일본 엔화 약세가 주춤하는 가운데, 엔/달러 환율은 143엔 대로 내려왔다.

지난달 30일 심리적 저지선으로 평가되는 145엔을 넘기도 했던 엔/달러 환율은 전장 대비 0.48엔 내린 143.76엔에서 거래되고 있다.

역외위안/달러 환율은 전장 대비 0.001위안 오른 7.2575위안이고, 원/달러 환율은 전장 대비 2.3원 오른 1,300.9원에 장을 마쳤다.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